

현불뉴스

노동법철폐 종교인행진

안기부법 노동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인행진이 2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있었다.

종교인행진에 참여한 3백여명의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인들은 행진에 앞서 조계사 법당에서 종파를 초월한 범종교인 시국법회를 가졌다.

청와장은 인사법을 통해 '안기부법 노동법 기습처리를 성직자의 양심으로써 좌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같이 이해 모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악법이 철폐 또는 재논의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의 힘을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시국법회를 마친 범종교인들은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였고, '현시국에 대한 종교인들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 사회적 정권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안기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월정사 불국사 보물선거 결의

조계종중앙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제4교구(월정사) 보물선거를 2월 23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제11교구(불국사) 보물선거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를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선거위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11교구 보물선거는 무선거권자 6명이 개입되었으므로 원칙적 무효"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은해사 교구총회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오는 30일 경내에서 96년도 결산보고 및 제10교구 포교단 총회, 교구신도회 창립건 등 중요 안건처리를 위한 교구총회를 개최한다.

제10교구 포교단은 경산 함양 산령군위 청송 등 5곳에 산재한 포교당을 중심으로 도심포교활성화를 위해 작년도 발족됐던 통천사 태일스님이 단장으로 있다.

2월3일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인 제10교구 신도회는 43개 은해사살사 신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서정수 영천시의원이 초대회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독거노인에 보청기 전달

부산불교산악회(회장 한계수)는 지난 24일 코모도 회관에서 대구 서울 등지의 산악회 회원과 부산산악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및 독거노인 보청기 수여식을 가졌다.

우리는선우 소년가장 초청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다음달 1,2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족 32명을 초청해 '몽기백백캠프'를 실시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캠프에는 선우회원 40여명도 동참한다.

“禪定문화로 미래사회 열자”

하나로포럼 선정회 25일 출범 민주·통일등 새불교운동 전개

스님·언론·학계등 지식인 80여명 동참

'한국의 선정(禪定) 반야의 지혜를 얻고 생활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서 생각을 쉬는 것' 문화로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청정국토가 조화된 민주통일정도를 구현하겠다'는 가치어래 중진스님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선정문화의 이해와 실천을 통한 '미래사회 새불교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하나로포럼 선정회'가 그것. 미

래세계의 중심국이 될 한국의 선정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불교를 중심으로 학술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의 학제적 연구, 나아가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통일정도를 구현해 지식인들이 활동의 선언한 것이다.

'지금 여기,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 기초발전에 나선 고준환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1세기에는 한국이 통일되고 세계문명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간화선 평상심(도)이라는 생활종교 측면에서 선

정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국가적 세계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집결, 민주통일정도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에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고준환(경기도 법학과) 박선영(동국대 교육학과) 심재홍(서울대 철학과) 연기영(동국대 법학과)교수가 연사로 대표로 참여했다. 또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최정달(경상대 경영대학장) 김정자(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은운(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전창열(연호사) 조영권(경남대, 4월혁명연구소) 윤범모(경원대 미술교육과)씨 등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는 종단 및 정치권과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의 안정적 발전 및 학술 종교 예술 등 제(諸)분야를 학제적으로 연구해 비전을 제시, 궁극적 목표인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신행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운동은 불교계와 사회가 제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에는 터부시해 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 지식인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주목받고 있다.

하나로포럼 선정회는 25일 기념포럼, 26일 백운암 인각사 선본사 등 문화유산순례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분황사 삼룡변어정·보광전 복원

국비등 2억 투입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약사여래불상(도지정문화재자료 319호)을 봉안한 분황사 보광전과 삼룡변어정(도지정 문화재자료 10호)이 수리복원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보광전은 해체부식제 교체와 번외보수·기단보수를 위해 1억원, 신라시대 돌우물인 삼룡변어정 복원을 위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

원이 각각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우물이 복원되면 참배객들은 옛날과 같이 두레박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경주시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설계작업등을 거쳐 내년에도 수리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未인가 승가대 졸업생 비구계수지 불허키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교육원장 원스님은 지난 20일 공동담화문을 발표, '97년 7월 2일 이후부터는 종단의 미인가 승가대학에 입학하여 이수하였더라도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원이 승려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한 승가대학은 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통도사 백양사 범어사 봉암사 청암사 운문사 통학승가대학 등 10개이며, 승가사는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교육원은 학인 50명이상, 교수 5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7월 1일까지 인가를 신청해올 경우 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진흥회 초파일행사 별도 추진

종단진흥회(회장 일공스님)는 지난 22일 조계종 위주로 운영되는 초파일행사에 종단별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오는 30일 열기로 한 종단별 회의장소가 조계종 4층 회의실로 정한 이유에 대한 해명 요구서를 종단회에 전달했다. 종단진흥회는 만약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대해 종단협의 해명이 적절치 않을 경우 4·8봉축행사를 종단회에서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단진흥회의 21일 회의에는 은덕(천태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대호(대한법화 총무원장)스님 등 11개 종단대표가 참석했다.



동화사 기초선원 현판

조계종의 새로운 기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기초선원이 오는 2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지난 21일 동화사에서 기초선원중심도량 현판식이 봉행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월주스님(총무원장) 기초선원 조실로 추대된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을 비롯 진하스님(기초선원장) 해창스님(총무부장) 향적스님(교육부장) 무공스님(동화사주지) 법타스님(은해사주지) 무어스님(축사사) 원운스님(해인사선원장) 휴암스님(기기암선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보리수마을 이사회, 복지재단 합병은 제기

보리수마을, 복지재단에 합병되는가. 이사장 시현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세움빌 보리수마을의 운영 및 자금난 해결에 관계자 및 입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세움빌 보리수마을은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보리수마을을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월주)에 합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결의하고,

52세대가 분양됐다. 입주금은 총 70억 400만원이 입금됐다. 부채는 건설비에 상당한 입주자 자선금 등 은행 대출금 1백여억, 공사비지급액 어음 등 총 232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거 '불교실버 산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이미지만 실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단번에 불교복지를 이룩하

조계종 '신종론' 대두

부채·입주자 미확보 등 뒷감당 '급급'

이사회 결의서와 보리수마을 운영계획서 등 공문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접수했다. 이에따른 총무원의 입장은 보리수마을이 232억여원이라는 엄청난 부채 등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신종론을 펴고 있다.

재단은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처음부터 역부족인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조계종 믿고 들어온 입주자들은 사기당한 것과 진배없다'라는 극단적인 지적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보리수마을은 교계 최초 메머드 유료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는 화려한 포장에 달리 계승되는 자금난과 사회적 인식부족에 따른 입주자 확보의 어려움, 교계의 무관심 등으로 곤란을 겪어 왔다.

한편 지난 18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현행 이사장 권한대행 체제를 단번간 유지키로 하고, 정각스님(울산 도솔암주지) 명신스님(강화 보문사주지) 종림스님(해림정주지)을 새 이사에 영입했다. 이사명단에 이어 정각스님을 이사장 권한대행에, 명신스님을 상임이사에 선출했다. (필)

마음 백척간두에 서서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고 내서지 못하면 찡자기능 밖 건할 수 없다. 자기가는 단념이 없어야 한 발 뚝 수 있을 것이나 자기가는 없으면 촛떡당삭도 할 수 없다. 죽고사는 것을 몽땅 달리고 달리는대면 내딛지 못하겠는가. (한어유언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평일 공무원시험” 교계 반발

총무처장관 ‘주일성수’ 종교편향 발언 ‘과문’

김한규총무처장관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한데 대해 조계종총무원 전국불교연합 등 불교계에서 특정종교의 권익을 의식한 종교편향 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무처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97년도 공무원 증원 및 총무업무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관련 조용기목사가 발행한 '국민일보'는 17일 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김총무처장관은 인사에서 '불소 국가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우선 올해 7급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 하겠다고 내년부터는 10만여명의 응시자가 몰리는 9급 공무원시험도 평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했다'고 보도했다. 총무처장관실은 이와 관련, 시험일자 결정은 개신교계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시험감독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97년도 공무원 증원 및 총무업무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관련 조용기목사가 발행한 '국민일보'는 17일 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김총무처장관은 인사에서 '불소 국가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우선 올해 7급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 하겠다고 내년부터는 10만여명의 응시자가 몰리는 9급 공무원시험도 평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자를 택하는 것은 종교편향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전국불교연합(상임의장 지선)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종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종교간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처사로 철회돼 한다"며 김장관의 참회와 문책을 촉구했다.

“불자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 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 신비의 佛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으나 100분의 스님들께서는 지역의 전불자들에게 佛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 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 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선, 경성북도 대현불교 상단문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미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1 성지관음회 (회장 혜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佛탑다라니서면, 자제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기(氣)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기(氣)는 심신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佛탑다라니를 통해 대면, 품속 기(氣)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품속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막혔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법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연과 영계에 파장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것인지? 등 어떠한 일든 금강경 신법다라니에 의해 낫고 기(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기(氣)가 나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기(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환(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기(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은빛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서 빌리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채를 일으킵니다. 이때 佛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도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거나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옵니다.

⑤ 佛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방편을 알고 단번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기(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을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불심을 길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향과 재산을 마련하여 그것을 피하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에게 사 용해 주시므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佛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사용하며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 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탑다라니 조성경위의 사용방법 및 간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알고 기(氣)를 스님을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회에서 제공하는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크기 : 6cm x 7.5cm

▲ 크기 : 3.5cm x 10.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